



≡ 전체 뉴스 복지TV 지역네트워크 복지관 소식 장애인신문

아동·여성

동방신기 해체, 아시아 장애 청소년들의 정신적 공황 불러올 터

김호중 입력 2009.08.02 17:43 | 댓글 10

🔍 📌 🗨️ 🏠



▲ ©2009 welfarenews

월 만원대 '실비보험' 최저가 비교가입!
17년 중매 마담뚜가 만든 결혼등급테스트
코인투자금 300만원으로 '이것' 물어놔라

Powered by adpnl

동방신기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이다. 동방신기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한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청소년들의 이상으로 자리매김 된 지 오래됐다.

얼마전부터 동방신기에 대한 해체설이 소문으로만 돌다가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 3명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및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체설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만약 동방신기의 현상황에 대하여 일면 타당한 이유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 이유들을 물리치고 팬입장에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우리의 팬들은 아이돌그룹이 자연스레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평생의 벗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것이다.

-  죽어도 안빠지는 뱃살, 핵심은 이것
-  2026년엔 가상화폐 '이것' 매수해라.
-  보청기 무료로 써볼 사람 계신가요

많이 본 뉴스

-  1 부산관광공사, 글로벌 플랫폼 협업으로 '2026 ...
-  2 광양시 광영동, 2026년 설 명절 맞아 경로당 순...
-  3 영암 어르신, '백세까지 팔 팔하게' 함께 걸어요
-  4 이수라이온스클럽, 풍덕동에 지속 가능한 나눔 ...
-  5 북향동, 새해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개최

오늘의 사진



함평군, 엄다면 농산어촌유학 가족거주시설 ...



미국 주식투자는 '3개공식'만 똑같이 ...



난청 놔두지 말고 보청기 써보세요 무...



17년 중매 마담뚜가 만든 결혼등급테스...



1억넘은 비트코인 이제 '이코인' 매수해라



로또 자동으로 사지 마라! '이 방법'으로...



26년엔 미국주식이 대세다 '이렇게' 투...

한편, 연예인들은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지금까지 연예인과 소속사간 불화설이 한 두번 발생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 사회계약의 불공정과 불확실성이 가져온 결과로 추정된다. 공정래위원회가 표준계약을 제정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한국 연예산업의 기반은 이처럼 취약하다. 그러다 보니 매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자살 등 부정적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키워놓으면 떠난다는 배신감도 취약성에 한 몫을 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토대에서는 연예선진국처럼 수십년간 지속되는 그룹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든 동방신기는 국내외 장애청소년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그룹으로서 만일 이 그룹이 해체될 경우, 이들에 대한 정신적 타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문제가 연예계의 팬들과 연예인간 생애적 관점에서 긴 호흡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호중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